

						번호: PO-EM-012
제 목	가사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자각증상과 관련요인 The study on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the visiting housekeeper					
저자 및 소속	윤송이, 최재욱, 김해준, 이은일, 조준희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분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표자		발표 형식	포스터	
<p><b>목적:</b> 최근 가사노동 장애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는 직업병으로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부각되어지는 반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근골격계질환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며 여성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가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근골격계 질환의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p> <p><b>방법:</b>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0일까지 경기도와 서울시에 소재하는 임의 추출된 가사노동 관리 업체에 근무하는 가사노동 여성근로자 200명중에서 회수된 설문 조사지 180매로(회수율 90%),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게 작성된 6부를 제외한 17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각증상 조사는 총 115개 문항으로 일반특성, 근로조건, 작업형태, 근골격계 자각증상, 작업자세, 작업현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선별기준으로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근골격계 자각증상 양성을로, 두 번째 방법은 NIOSH의 기준으로 증상의 빈도, 지속기간의 점수를 합하여 4점 이상인 경우, 세 번째 방법은 33명의 작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한 (김수근 등, 1998) 의 방법을 응용한 것으로 증상의 빈도, 지속기간, 강도의 점수를 합하여 7점 이상인 경우를 근골격계 자각증상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PC 10.0 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p> <p><b>결과:</b> 골격계 자각증상 양성을은 어깨 136명(78.2%), 등 116명(66.7%), 무릎 106명(60.9%), 목 98명(56.3%), 손 70명(40.2%), 팔 52명(29.9%), 순으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어깨와 팔 통증은 근무경험과 평소건강, 등 통증은 중량물 취급정도, 부적절한 자세가 나타났다. 4점 이상의 NIOSH 기준에서 근골격계 양성을은 어깨 121명(69.5%), 등 103명(59.2%), 무릎 95명(54.6%), 목 80명(46%), 손 57명(32.8%), 팔 44명(25.3%), 순으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어깨 통증은 귀가 후 집에서 가사 노동시간이, 등 통증은 중량물 취급정도가, 무릎, 목, 손 통증은 운동 유무, 평소건강 상태가 나타났다. 7점 이상의 Kim등 응용 기준에서 자각증상양성을은 어깨 58명(33.3%), 무릎 52명(29.9%), 등 49명(28.2%), 목 30명(17.2%), 손 30명(17.2%), 팔 29명(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로지스틱 분석결과 어깨, 등, 팔 통증이 휴식시간 유무가, 목 통증은 평소건강상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p> <p><b>결론:</b> 근골격계 장애 요인으로 예상되는 여러 요인 중 근무기간, 가사노동 근무지 주택규모, 근무지 동거 가족 수 등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가사노동 근무지 가족의 동거 가족 수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자세나 중량물 취급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양성을에서 유의하게 나왔던 작업자세가 점수별 분석에서는 휴식 여부가 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귀가 후 가사활동 등 이중부담으로 휴식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p>본연구는 연구대상을 일부 지역에서 선택하는 등의 제한점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나 근골격계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사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알고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부적절한 자세교정과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근골격계 장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다양한 원인과 좀 더 큰 규모의 코호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p>						